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Consumer Insight

##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Travel Report `20)

기 관	컨슈머인사이트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문 의	김민화 연구위원/Ph.D	연 락 처	02) 6004-7643
배 포 일	'20년 11월 12일 (목) 배포	매 수	자료 총 3매

## 코로나가 싹 바꾼 여심(旅心), 해외여행 대신 호캉스?

- 컨슈머인사이트, 코로나 이후 여행행태 변화 조사
- 소비자 70% 이상 “코로나가 여행선택 기준에 크게 영향 줘”
- 가장 큰 변화는 여행장소...호텔 관심증가 44% '최고'
- 언택트 대표 여행지 산·계곡보다 높아 '뉴 노멀' 예고

코로나19는 여행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소비자 70~80% 이상은 여행지역, 횡수, 기간 등 여행의 모든 측면에서 코로나의 영향이 상당히 컸으며 특히 여행장소 선택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느꼈다. 코로나 이후 여행 장소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장 크게 높아진 곳은 호텔(호캉스)이었으며, 이는 대표적인 언택트(비대면) 여행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산·계곡을 크게 앞선 결과로 주목된다.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여행과 코로나19에 대한 조사(1만3000여명 대상)에서 여행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짚어 봤다. 여행의 6개 측면(여행지역, 빈도, 기간, 식사, 숙소, 교통) 가운데 '영향을 크게 줬다'(매우+상당히)고 응답한 비율은 여행지 선택(86%)과 여행 횡수(85%)가 가장 컸다.

### ■ 호캉스와 자연 관광지는 '좋아요' - 인파가 물리는 곳은 '싫어요'

'여행지 선택'과 관련해 12가지 장소(바다/해변, 산/계곡, 수영장/워터파크, 테마파크/놀이시설, 역사/종교/유적지, 재래시장/야시장, 변화가/유흥가, 쇼핑몰/백화점, 문화시설, 위락/체험/액티비티, 맛집/카페, 호캉스)에 대해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묻은 결과 전체적으로 '관심이 줄었다'가 크게 높았다. 코로나 이후 관심이 '늘었다'는 응답이 '줄었다' 보다 우세한 것은 '호캉스'와 '산/계곡' 뿐이고, 이 외 10개 장소는 관심이 '줄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그림1). 특히, 관심이 줄어든 10개 장소 중 8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관심이 '줄었다' 했고, 테마파크/놀이시설, 수영장/워터파크, 변화가/유흥가는 '관심이 줄었다'가 70% 이상으로 극심한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캉스는 관심이 '늘었다'가 줄었다 보다 유의하게 많은(17%p) 유일한 케이스다. 다중시설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영장이나 조식 등 호텔의 편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벗어난 '휴식'과 '언택트 여행' 욕구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여행의 주 선호층인 △20-30대 여성 △미혼 △신혼가구의 관심이 뜨거워 '해외여행의 대체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산/계곡은 관심이 '늘었다'가 '줄었다' 보다 3%p 우세했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남성 △자녀 아동기 가구에서 높아 20-30대 여성이 선호하는 호캉스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코로나 이후 관심이 증가한 호캉스와 산/계곡 모두 '언택트'와 '휴식'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관심이 '줄었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장소는 '사람이 붐비는 곳'이었다. 변화가/유흥가(-72%p), 수영장/워터파크 (-69%p), 테마파크/놀이시설(-63%p)이 대표적이다. 이 결과는 번잡한 대도시를 피해 한적한 자연을 선택한 올해 여름휴가 특성과도 직결된다[참고. 크게 줄어든 여름휴가 여행, 핵심은 '언택트'].

### 코로나 이후 장소 별 관심 변화

코로나 이후 관심이...	↑ 늘었다(%)	↓ 줄었다(%)	늘었다 - 줄었다 (%포인트)
① 호캉스	44	27	+17
② 산/계곡	32	28	+3
바다/해변	28	34	-6
역사/종교/유적지	13	43	-30
맛집/카페	12	53	-40
문화시설	10	56	-46
재래시장/야시장	9	57	-48
쇼핑몰/백화점	9	60	-51
위락/체험/액티비티	9	65	-56
테마파크/놀이시설	7	70	-63
수영장/워터파크	6	75	-69
변화가/유흥가	5	78	-72

**코로나 이후 호캉스 관심이 늘었다.. ↑**  
**전체 44%**

**주 선호 층**

- 여성 48%
- 20대 57%
- 30대 50%
- 미혼 51%
- 신혼기 50%



Q. 코로나 이후 각 장소에 대한 귀하의 관심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출처 : 컨슈머인사이트 2020년 여름 휴가 여행 조사 (사례수 : 13,252명)  
[그림1] 코로나 이후 장소별 관심 변화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길이 막히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여행업은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꿈꾸고 있고, 새로운 기회와 방법 찾기는 계속 될 것이다. 요즘 여행의 핵심은 '언택트'와 '휴식'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줄 대안은 아직 많지 않다.

[별첨]

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년 여름휴가 경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여름휴가 여행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컨슈머인사이트의 80만 IBP(Invitation Based Panel)를 표본틀로 하여 2만6308명을 조사했으며, 표본추출은 인구구성비에 따라 성·연령·지역을 비례할당했다. 자료수집은 이메일과 모바일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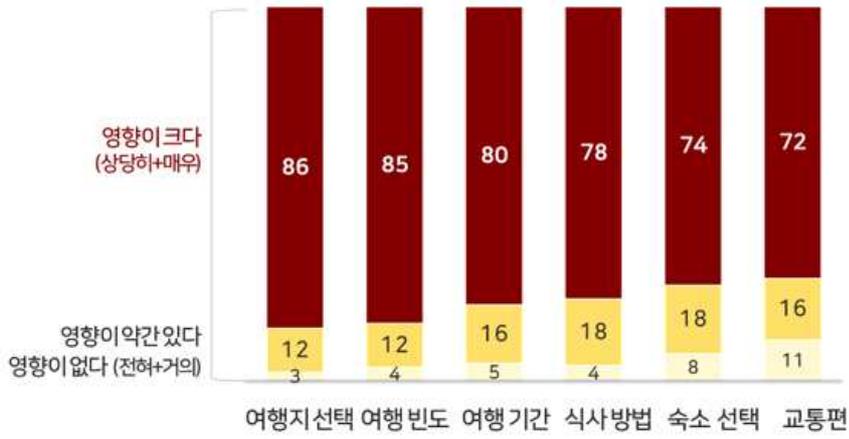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For-more-Information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최수정 컨슈머인사이트 대리	choisj@consumerinsight.kr	02)6004-7627
조혜원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원	johw@consumerinsight.kr	02)6004-7631

> [별첨] 항목별 코로나 영향력

[단위: %]



Q. 코로나 19가 귀하의 여행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출처 : 컨슈머인사이트 2020년 여름 휴가 여행 조사 (사례수 : 13,252명)